

초중고 절반 '예산·회계비리' 적발

사립학교 지적 건수 및 재정 환수금액 공립의 2배·8배

4년간 시험지 유출 13건·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5건

초중고 감사결과 올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17일 실명 공개한 초중고 1만392개교의 지적 사항 3만216건 중 약 절반인 48%가 예산·회계 비리로 드러났다.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기재·관리가 부적정한 경우도 각각 13건과 15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이 2015년 이후 전체 1만591개 학교 중 1만392개교(89.7%)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이날 초중고 감사결과와 감사처분 이행 여부를 실명 공개했다. 18일에는 부산·인천 등 7개 교육청이 공개한다. 초중고 감사결과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됐다.

◇ 징계 이상 처분 1%도 안 돼... 대부분 경고·주의 처분

교육부에 따르면 92%의 초중고가 지적을 받았다. 1개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을 받았다. 단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549개교, 중학교 233개교, 고등학교 48개교 등 총 830개(8%)로 나타났다.

총 지적 건수는 3만216건으로 예산·회계비리가 1만5021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기재·관리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으로 분석됐다. 경고·주의 처분은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 고발·수사 의뢰 70건(0.1%)이었다. 경징계는 징계 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 사례가 1%가 채 안 되는 0.6% 수준이었다.

전체 재정상 조치 금액이 156억 4262만원에 달했다. 사립학교의 조치금액은 평균 570만원으로 공립학교는 68만원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 건수(5.3건)와 징계건수(중징계 88건·경징계 188건), 고발·수사 의뢰 건수(53건)는 공립학교 2배였다.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570만원)은 공립(68만원)의 약 8배에 달했다.

감사결과 처분은 3만216건 중 3만1014건이 이행했으나 이행 중인

처분이 172건(0.6%), 이행하지 않은 지적 건수는 30건(0.1%)로 나타났다.

◇ 시험지 유출자 대부분 학생·교사

최근 4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유출자는 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교사도 5명이 나왔다. 행정직원은 1명, 배움터지킴이 1명이었다.

일반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목고는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

고 1건으로 집계됐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9건, 공립은 4건이었다. 출제단계와 보관 단계에서 유출된 사례가 각 6건이었으며 인쇄 단계에서 유출된 경우가 1건이었다.

파면된 교사는 1명, 2명은 해임 조치,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생은 4명이 퇴학 당했고 출석정지가 1명, 수사 중인 사안이 1명이었다. 직원은 2명 모두 구속됐다. 교사와 학생 1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한 건은 사립학교에서만 총 15건 발생했

다. 규정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정정이 4건, 출결관리가 미흡한 사례 3건, 허위 기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은 검책만 받았다. 파면과 정적이 각 3명, 해임과 감봉이 각 2건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며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미세먼지에 갇힌 도시민 초미세먼지가 나뉠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후 서울 중로구에서 한 시민이 대중교통 버스 안에 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행안부, 이용 저조 공공앱 139개 폐기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139개가 폐기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공공 앱 성과추진계획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해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앱 771개 중 442개는 유지하고 190개는 개선한다. 특히 지난 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약 40%가 감소했다.

또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개선·폐기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4개 기관, 17개 앱에 대해 폐기권고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은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됐다. 성과추진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의 폐기, 40~50점은 개선토록 했다.

올해 운영 중인 공공앱은 지난해 895개에서 올해 771개로 124개 감소(14%)였다. 신규개발 앱은 81개로 지난해 111개 대비 27% 줄어들었다. 누적 내려받기 수가 1만건 이상인 앱은 전체 55%로 나타났다. 1000건 이하인 앱은 전체 15%를 차지했다.

뉴스스

여성 300여명 성폭행 브라질 신앙치료사 자수

신앙 치료를 한다며 3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은 브라질의 유명한 신앙치료사가 16일 브라질 중부 고아아스주에서 경찰에 자수했다고 브라질 경찰이 밝혔다.

'천주의 요한(Joao de Deus)'으로 불려온 주앙 테이세이라 데 파리아(76)는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까지 경찰에 자진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도피했다가 하루 만에 고아아스주 아비다니아에서 자수했다.

폴하 데 삼파울루 신문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데 파리아는 "신과 세계의 정의에 따라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년 간 압도 치유할 수 있는 신앙치료사로 브라질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주 몇몇 여성들이 글로벌 TV에 출연해 데 파리아가 신앙 치료를 한다며 자신들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데 파리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이 300명을 넘어지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피해 여성 가운데에는 데 지금은 성인이 된 파리아의 딸도 포함돼 있다.

데 파리아는 지난 14일 잡지 '베자 외의 인터뷰'에서 딸이 10살이던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정신적 치료를 위해 딸을 성폭행했다고 시인했다.

그의 딸은 아버지의 직원의 아이를 임신하자 심하게 얻어맞아 유산했으며 이후 성폭행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아버지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데 파리아의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논평도 거부했다.

데 파리아는 영적 지도나 고백에 대한 치료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추종을 받았었다. 지난 2012년 오프라 윈프리스에 출연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오프라 윈프리스는 데 파리아가 마취도 하지 않고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의 유방을 수술하는 것에 놀랐으며 압도적인 평화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칼럼은 지금은 삭제됐다.

짐바브웨 고속도로서 버스 2대 충돌 11명 사망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 부근 고속도로에서 일요일인 16일 저녁(현지시간) 미니버스 2대가 정면 충돌해 1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어른 10명과 어린이 1명이다. 이 사고는 수도 하라레에서 49km 떨어진 니인판다 고속도로 부근의 모잠비크와의 국경 지대에서 일어났다.

폴 니안티 경찰대변인은 사고는 한 쪽 버스의 타이어 한 개가 터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달려오던 다른 버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짐바브웨에서는 버스 충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 전날에도 남아공으로 향해 가던 버스에 불이 나 전소되면서 40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 홋카이도 술집서 폭발사고 42명 다쳐

일본 북부 홋카이도 삿포로(札幌) 시내 술집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 4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날 밤 8시30분께 삿포로시 도요히라(豊平)구 히라키시(平岸)에 있는 주점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이 나 손님 등이 부상했으며 이중 1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2층짜리 술집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일부가 내려앉았다고 한다.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美30대 IT부호 크롤, 자택서 시신으로 발견

모바일 퀴즈쇼 애플리케이션 HQ 트리비아(Trivia)와 동영상 플랫폼 바인(Vine)의 설립자인 폴린 크롤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크롤은 현재 34세이다.

뉴욕타임스, CNN, 미국 연예전문매체 TMZ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경찰은 크롤의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의 아파트 안에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크롤의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남자친구의 상태가 걱정되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크롤의 시신 옆에서 마약과 관련된 장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HQ 트리비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친구이자 설립자인 크롤의 죽음을 오늘 알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택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